

포항시, 푸드테크 육성 결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본격화

푸드테크 스타트업 ‘딜라이트푸드’
셀룰로오스 식물성 대체육으로
창업 경진대회 최종 파이널리스트
유럽 진출·파트너십 확대 계획

포항시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푸드테크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으며, 미래 식품산업 중심도시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포항에 본사를 둔 푸드테크 스타트업 ‘딜라이트푸드’는 세계 3대 창업 경진대회 중 하나인 ‘MassChallenge Switzerland 2025’에서 최종 파이널리스트로 2일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500여 개 혁신 스타트업이 참가했으며, 딜라이트푸드는 셀룰로오스 기반 식이섬유 구조 기술을 활용해 고기의 식감을 구현한 식물성 대체육을 선보이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본선 진출 기업은 이달 말부터 10주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며, 우수팀에는 총 110만 달러 규모의 상



지난해 5월 제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사)한국푸드테크협의회 경북대구지회 발족식. /포항시

금과 투자 유치 기회가 주어진다. 딜라이트푸드는 이를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맞춤형 행정 지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

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해당 센터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NSF 등 기기 인증과 스마트 키친 실증 기능을 지원하며, AI·로봇 기반 식품산업 자동화, 고령사회 대응 기술, K-푸드 세계화 등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식품로봇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푸드테크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 육성과 연계한 민·관 식품산업 발전 플랫폼도 구축 중이며, 오는 7월에는 ‘포항시 식품산업 발전협의회’ 창립 발대식을 열고 기업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품 제조·유통·외식 기업과 푸드테크 기업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특화지인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국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광역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녹색성장도시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은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테크기업과 연구기관, 식품산업이 협력하는 초융합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산업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s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지원

영덕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이다.

65세 이상 군민은 6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를 통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은 현재 사용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발급도 가능하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주시

‘서경주IC’로 도시 정체성 강화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속도로 관문인 ‘건천IC’의 명칭을 ‘서경주IC’로 변경하며 도시 정체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건천IC’ 명칭을 ‘서경주IC’로 변경하는 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명칭 정비와 함께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건천IC’는 읍 단위 지명을 사용해 ‘경주IC’, ‘동경주IC’, ‘남경주IC’ 등과 명칭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승인으로 명칭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고흥군

오는 7월 ‘2025대 드론쇼’ 열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6월 7일 저녁 9시, 낙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2025대 드론쇼’를 개최한다.

낙동항과 소록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총 2025대의 드론이 고흥의 3대 미래 비전(우주, 드론·UAM, 스마트팜)과 3대 교통인프라(고흥~광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고흥~봉래 간 도로 확포장)를 형상화해 입체적으로 연출된다. 이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드론쇼로, 대규모 드론 운용 기술을 활용한 연출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

대구시는 집중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지하차도 24곳에 진입차단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은 태풍, 집중호우, 하천 범람 등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하차도 배수시설 적정성 검토 및 용역’을 시행한 결과, 신천대로 12곳과 서변·고촌·울하지하차도, 동인·철성·신암지하차도, 불로지하차도, 평리·서평·상리지하차도 등 24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경북도, 이철우 지사 임원

“도정 흔들림 없이 이끌겠다”

이철우 도지사, 혈액암 진단
김학홍 행정부지사 회의 주재
산불피해·국정 등 과제 제시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임원한 가운데,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며 산불 피해 복구와 새 정부 국정 과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 도지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도지사께서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충분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방침을 전달하며 회의를 평소처럼 차분하게 주재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 부지사는 ▲대규모 산불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



이철우 경북지사와 부인 김재덕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예천군 호명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경북도

구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 대비한 실·국별 전략 마련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반영과 추경 확보 ▲APEC 정상회의 철저한 준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기도, 4개 노선 ‘철도 지하화’ 제안

국토부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기대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5년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철

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와는 별개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 관내에서는 안산선(5.1km)이 지정되어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경기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평택시, 中 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

中 7개 도시와 교류 재개

평택시는 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그간 정체됐던 중국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전략적으로 재정비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중국 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현재 중국의 7개 도시(칭다오, 다렌, 르자오, 엔타이, 룡청, 닝보, 샤먼)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코로나19 및 외교적 요인으로 중단됐던 교류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중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계획은 ▲도시별 맞춤형 교류 전략 수립 ▲비활성화 도시와의 관계 복원 ▲활성화 도시와의 실질 협력 심화 ▲관계기관 연계 기반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다렌시·칭다오시·룡청시 등 교류가 중단됐던 도시는 문화예술, 체육 등 시민 참여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재개하고, 엔타이시·샤먼시 등 기존 활발한 도시는 청년, 산업, 스마트 도시 분야까지 협력 영역을 넓힌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는 ‘1도시 1대표 교류사업’을 정례화해, 실질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국제교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하동군, 중남미 茶 비즈니스 리더 초청

하동녹차 현지시장 공략

하동군이 하동녹차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영향력 있는 차 비즈니스 리더 13명을 초청해 ‘중남미 차(茶) 비즈니스 종사자 초청 티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동녹차의 뛰어난 맛과 전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하동녹차에 대한 환상과 매력을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하동군과 멕시코 업체 ONCE ROMI가 지난해 체결한 수출 협약의 후속 조치로, 단순한 팸투어를 넘어 하동녹차의 뛰어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현지 시장에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왔다.

ONCE ROMI는 하동녹차를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에 유통하고 있으며, 자사 프랜차이즈 카페 ‘MIOM ATCHA’ 및 하동다실 1호점을 통해 하동녹차의 현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